

혜택 쏠쏠 ‘혜자카드’ 줄줄이 단종... ‘無조건 카드’ 대세로

카드사, 수익성 악화에 비용 절감 신화 ‘더모아카드’, 1년 만에 단종 소비자, 실적 등 조건 없는 카드 몰색

연회비 대비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던 카드(혜자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수익성 악화를 앞둔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들은 잇따른 알짜 카드 단종에 실적이나 한도 조건이 없는 ‘무조건 카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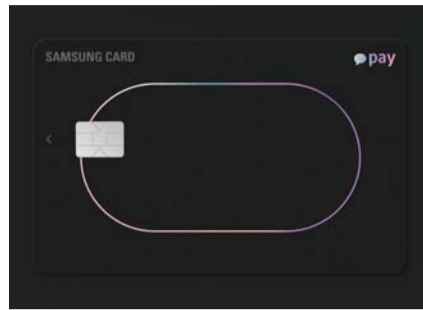
11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를 맞아 피킹틀(카드 사용액 대비 실제로 받은 혜택의 비율)이 높은 신용카드들이 단종되며 소비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출시 1년 만에 단종을 맞게 된 신한카드의 ‘더모아(The More)카드’가 대표적이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31일부로 더모아

변경 상세 내용		
발급 중단 일자 2021년 12월 31일(금) 18시 기준		
발급 중단 카드 · 유효기간 연장 가능		
구분	상품명	세부내용
신용	Big Plus GS칼텍스 예금	· 신규 발급 중단 · 재발급 시 유효기간 연장 가능
	2030 우체국멤버십	
	Lady 교육사랑	
	Lady 우체국 멤버십	
· 유효기간 연장 불가		
구분	상품명	세부내용
신용	The More	· 신규 발급 중단 · 재발급 시 유효기간 연장 불가

신한카드가 지난달 31일부로 더모아 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신한카드

카드를 비롯해 ▲2030우체국멤버십 ▲레이디 교육사랑 ▲레이디 우체국 멤버십카드 등 5종을 단종시켰다.



카카오페이 신용카드는 조건 없이 결제금액의 최대 3%를 돌려준다. /삼성카드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나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다.

실제 지난달 말일까지였던 신규 발급 마차를 타기 위해 몰린 소비자들로 인해 카드 배송일이 늦춰진 상태로 알려졌다.

‘싼테크족’은 새해를 맞아 ‘제2의 더모아카드’를 몰색하고 있다. 갈수록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간간해지면서 실적이나 한도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무조건 카드가 주목받는 추세다.

무조건 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과 할인 한도 등 제한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할인·적립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뜻한다. 메인카드로도, 서브카드로도 활용 가능해 소위 가성비 좋은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실제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인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카드 역시 무조건 카드였다. 1위로 선정된 ‘현대카드ZERO 에디션 2’는 국내의 모든 가맹점에서 0.7% 할인을 제공하며 대중교통, 모든 음식점, 카페 등 생활필수영역에선 1.5%를 할인해 준다.

삼성카드가 지난 4일 카카오페이와 함께 출시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인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역시 조건 없이 높은 포인트 적립률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카카오페이에 카카오페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3%를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으로 쇼핑, 여행, 도서 등 다양한 온라인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지난 10월 말부터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

이밖에 롯데카드의 ‘라이트 올 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1% 할인을 제공한다. 우리카드의 ‘DA@카드의 정식’은 국내의 전 가맹점에서 0.8%를 기본 할인해준다. 6대 생활업종에선 1.3% 할인이 적용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장 올해부터 카드론 DSR 선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업계 수익 악화가 우려돼 단종 카드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기본 할인율이 크게 높지 않아도 조건 없이 제공된다는 장점 때문에 ‘무조건 카드’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권소원 기자 think@metroseoul.co.kr

2금융권도 마이데이터... ‘특화서비스’ 다채

각사별 정체성 살려 새 고객층 확보 농업경영분석 등 이색 기능 제공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대가 개막했다.

1금융권에 비해 참여사는 적지만 서비스는 다채롭다. 보편적인 금융서비스 외에도 각사별 정체성을 살린 특화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등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응용프로그램개발 환경(API) 방식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 저축은행권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이 마이데이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상호금융권 최초로 마이데이터 서비

스를 선보인 농협상호금융은 자산관리·지출분석 등 금융 생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농업인 조합원 특화 서비스, ‘마이농가’를 통해 농업경영분석·영농캘린더 등 이색 기능을 제공한다.

영농캘린더의 경우 수입·지출 등 금융정보를 달력 형태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작목별 카테고리 선택이 가능해 영농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밖에도 ▲면세유 배정 현황 ▲농기계 정보 제공 ▲농업정책자금 안내 등 농업인 조합원에 특화된 서비스가 마련됐다.

농협상호금융의 마이데이터 시장 진출은 전 금융업권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춰가는 동시에 젊은 고객층을 유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

다. 농협상호금융 관계자는 11일 “대부분의 고객이 고령층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젊은 고객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년농 등 신규고객 수요가 늘고 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자사 앱을 통해 서비스 되는 웰컴마이데이터를 선보였다. 이자절감, 대출비교 등 부채관리에 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부채관리’ 서비스는 고객의 거래 현황을 분석한 후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한다. 부채 통합, 낮은 금리 상품 등을 안내해 고객이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보유한 자산을 기반으로 최

적화된 ‘대출상품비교 서비스’도 제공한다. 웰컴저축은행 외에도 7곳의 금융사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융사 중 타사의 대출 상품까지 비교 안내해 주는 곳은 웰컴저축은행이 유일하다”며 “새로운 고객을 유입, 플랫폼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플랫폼으로의 확장 전략도 돋보인다. 최근 증가한 비대면 거래 수요에 기반해 웰컴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반 안심거래 서비스를 선보였다.

판매자와 거래자 모두 웰컴마이데이터만 가입하면 웰컴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물건 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다. 특히 사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래금액의 최대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권소원 기자

SC제일은행 마이시그니처통장 가입자 최고 연 1.5% 특별금리

3개월 동안 최대 10억

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SC제일마이시그니처통장(마이시그니처통장)에 가입하는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에게 최고 연 1.5%(세전)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12개월 만기 퍼스트정기예금(만기지급식)에 1억 원 이상 가입하는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에게는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마이시그니처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은행거래실적과 연계해 고금리를 제공해 여유자금관리에 특화된 상품으로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안정적인 금리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인기를 얻어 왔다.

이번 이벤트는 입금 건 별로 입금일이 속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은행거래실적이 1억 원 이상이면 31일 이상 예치금액에 대해 1.2%의 이벤트 금리를 제공 받는다.

여기에 SC제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첫 거래 고객이라면 0.3%의 금리가 추가돼 최고 1.5%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벤트 금리는 3개월 동안 최대 10억 원의 예치금액까지만 적용된다.

배운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장은 “고금리 입출금 상품인 마이시그니처통장 외에도 은행거래실적과 예금평잔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마이웰쓰통장, 고객이 직접 우대금리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마이썬통장 등 금리 상승기에 여유 자금을 용도에 따라 골라서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금리 상품을 제안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우리종금 그룹 민영화 기념 ‘하이 정기예금2’

총한도 1000억 특판

우리종합금융은 우리금융그룹 완전 민영화를 기념해 우리금융지주 창립기념일에 맞춰 ‘하이 정기예금2’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하이 정기예금2’는 총한도 1000억원의 특판 정기예금으로 기본금리 연 2.5%, 1억원 일시 가입 시 우대금리 0.1%를 추가해 최고 연 2.6%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고객 전용 상품으로 만기는 240일이며 가입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로 우리종합금융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하다.

또한 우리종합금융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이 정기예금2’를 1000만원 이상 예

치하고 마케팅 수신 동의를 완료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우리종합금융 관계자는 “‘하이 정기예금2’는 출시 한 달여 만에 완판된 ‘하이 정기예금’의 후속 상품이며 앞으로도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고객 니즈에 맞춰 상품을 지속 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종합금융은 국내 유일의 전업 종합금융사로 대표상품으로는 CM A 노트(Note)와 정기예금이 있으며 예금 상품은 모두 5000만 원까지 예금 자보호가 가능하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종합금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Sh수협은행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별관에서 고객지향적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2022년 디지털개인그룹 워크샵’을 개최했다. /Sh수협은행

Sh수협銀, ‘디지털 혁신금융’ 머리 맞대

디지털개인그룹 워크샵 개최

Sh수협은행이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Sh수협은행은 지난 10일 고객지향적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2022년 디지털개인그룹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워크샵은 수협은행의 디지털금융 추진현황과 성과 등을 점검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마케팅, 고객관리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소원 기자